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민생과 조국, 추석 민심은 무엇이었나

9월 13일(금), 추석을 전후하여 연휴 4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추석은 멀리 떨어져 살던 일기친척들이 모여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차례(茶禮)를 올리고, 그 동안 살아온 소식과 안부를 물으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지역과 세대가 모처럼 함께 모이니,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과 정당, 대통령 등 정치권은 추석 민심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 추석 민심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조국(曹國) 법무부장관'에 관한 이야기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밤상머리 화제를 '조국'이 아니라 '민생'으로 돌리려고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석 전후에 서울역 등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신촌 등을 돌며 조국 임명 규탄집회를 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조국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 검찰권을 쥐고 있는 조국 장관은 지난 9일 장관 임명 당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차관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조국과 윤석열의 소리가 없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진검(眞劍) 승부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주목했던 추석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간단히 살펴본다. 여론조사라는 것도 어떤 내용의 문항(問項)을 넣느냐, 문항의 내용을 어떠한 말로 작성하느냐, 문항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하느냐, 어느 시점에 조사하느냐 등 여론 조사의 결과는 많은 변수(變數)가 개입될 수가 있다. 국민 여론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한다. 그래서 여론 조사가 민생

판단과 정책 결정에 불변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다소의 오차와 왜곡은 있을 수 있어도, 조사방법론 등 현대 과학과 학문적 성취를 인정해야 한다. 조사 의뢰기관(주체)인 언론사와 여론 조사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다.

9월 9일부터 11일 조사한 서울방송(SBS)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조국 임명 잘못했다 43%, 잘못했다 53%.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2018년 9월 긍정 72.1%, 부정 24.2%. 12월 긍정 47.6%, 부정 46.1%. 2019년 8월 긍정 50.8%, 부정 44.6%. 9월 긍정 45.1%, 부정 51.6%로 문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부정 여론이 긍정을 앞질렀다.

추석 하루 전날, 9월 12일 한국방송(KBS)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국 장관 임명 잘못했다 51%, 잘못했다 38.9%. 광주전남 임명 긍정 58.1%, 부정 23.9%. 대구경북 임명 긍정 23.1%, 부정 64.9%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18년 5월 긍정 평가 83.1%, 부정 평가 14%. 2018년 9월 긍정 72.3%, 부정 25%. 2019년 8월 긍정 50.1%, 부정 46.9%. 9월엔 긍정 44.8%, 부정 53.3%였다.

추석이 지난 연휴 기간인 9월 14일과 15일, 문화방송(MBC)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국 임명 잘못했다 36.3%, 잘못했다 57.1%. 30대는 임명 잘못했다 54%, 잘못했다 40.2%였다.

처음으로 이렇게 주요 언론사 KBS, MBC, SBS의 추석 민심 여론 조사를 자세히 인용했다. 조 장관 임명 여론만 보아도 조사시점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잘못했다가 잘못했다 보다 SBS는 10%, KBS는 12%, MBC는 21% 앞서고 있다.

결론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판단 착오요, 안일한 선택이다. 국민을 가볍게 보고 있다. 아직도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판단이 떨어지는 일부 국민도 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어 낸 국민이다. 많이 깨어나고 의식수준이 높다. 나는 일찌기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갖 거짓과 꾀변(詭辯), 위선(僞善)의 극치를 보고 국민들은 상식과 양심, 공정과 정의의 감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까지 철회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는 무당층(無黨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치 혐오를 넘어서 인간 혐오까지 격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짓과 사실, 권함과 법 집행,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서 회오리치고 있는 혼돈의 시대다.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과 양심, 정의감에 어긋나는 거짓과 특혜, 위선은 죄악이요 범죄다.

社說

심청축제 준비 차질없어야

올해로 열아홉번째를 맞는 곡성 심청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제19회 곡성심청축제'는 올해 '오마이갯 심청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잇고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색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축제는 메인 공연무대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게 된다. 중앙광장에서는 송가인 등 초청가수 무대는 물론 군민과 지역 예술인이 직접 만드는 공연, 심청 창극 등 문화공연이 쉴 새 없이 진행된다.

잔디광장에서는 축제 슬로건에 맞춰 매일 3회씩 '오 마이 갯림픽'이라는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곡성농악 경연대회, 농산물 팜마켓, 향토음식점 등도 볼만한 구경거리다.

곡성군의 최대 축제라 할 수 있는 심청축제가 완벽한 준비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축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축제장 곳곳에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조성된다. 제2주차장에서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상수리길 포토로드'가, 중앙광장 입구에는 현대관 심청과 갯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장미공원 내 소망정 '월하정인 포토존'에는 청사초롱 길이가 만들어지며 한복을 대여해 연인들이 달빛 아래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장미공원에서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가을장미의 자태와 향기에 흠뻑 취해볼 수 있다. 오솔랜드 주변은 추억과 즐거움이 있는 7080거리로 꾸며지며 곡성군 11개 읍면이 거리 버스킹, 심청주막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곡성농악 경연대회, 농산물 팜마켓, 향토음식점 등도 볼만한 구경거리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요양원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람이 엄청났던 태풍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농촌지역에서의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가 없거나 가지고만 다녀 실제 운행에 안전모

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륜차와 차량의 사고에 있어서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로 인하여 노면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모 착용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찰의 단속과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륜차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

전모를 착용하고 또 충격으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운전자들 또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이륜차는 배려와 양보는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용대 / 보성 검백파출소 경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